

2016년 10월 13일 공보 2016-10-18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6년 10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박종우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jongwoo@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개선 움직임이 여전히 미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률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국채금리 ¹⁾				
	15.1/4	2/4	3/4	4/4	16.1/4	2/4	16.7월		8월	9월	10.12일
미국	2.0	2.6	2.0	0.9	0.8	1.4	미국	1.45	1.58	1.59	1.77
유로지역	3.3	1.4	1.5	1.8	2.1	1.2	독일	-0.12	-0.07	-0.12	0.07
일본	5.0	-1.9	2.1	-1.7	2.1	0.7	영국	0.69	0.64	0.75	1.04
중국 ¹⁾	7.0	7.0	6.9	6.8	6.7	6.7	브라질	11.81	12.08	11.58	11.43
							인도	7.17	7.11	6.82	6.72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 상무부, Eurostat, 일 내각부, CEIC

주: 1) 10년물
자료: Bloomberg

[실물경제]

- 국내경제는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내수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개선 움직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며, 고용률은 소폭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교역의 점진적 회복,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15.4/4	16.1/4	2/4	3/4	16.6월	7월	8월	9월
GDP 성장률	3.3	2.6	3.1	2.8	3.3	..	-	-	-	-
GDP 민간소비	1.7	2.2	3.3	2.2	3.3	..	-	-	-	-
소매판매	2.0	3.9	6.1	4.6	6.2	..	9.1	4.4	6.0	..
(S.A, 전기비)	-	-	(3.1)	(-1.0)	(2.8)	..	(1.1)	(-2.5)	(2.0)	..
GDP 설비투자	6.0	5.3	3.9	-4.5	-2.7	..	-	-	-	-
설비투자지수	5.2	6.3	1.6	-7.1	0.8	..	2.4	-12.3	3.6	..
(S.A, 전기비)	-	-	(-1.2)	(-8.7)	(6.4)	..	(5.0)	(-11.7)	(14.0)	..
GDP 건설투자	1.1	3.9	7.5	9.6	10.8	..	-	-	-	-
건설기성액	-0.7	2.3	8.0	14.8	19.2	..	20.1	19.8	23.6	..
(S.A, 전기비)	-	-	(0.0)	(9.4)	(2.3)	..	(3.7)	(0.2)	(3.2)	..
수출(통관)	2.3	-8.0	-12.0	-13.6	-6.7	-4.9	-2.9	-10.4	2.6	-5.9
(일평균, 억달러)	(21.1)	(19.3)	(18.6)	(17.3)	(18.8)	(17.8)	(19.7)	(17.4)	(16.7)	(19.5)
제조업 생산	0.3	-0.6	0.1	-0.4	1.1	..	1.0	1.7	2.3	..
(S.A, 전기비)	-	-	(-0.7)	(-0.7)	(1.1)	..	(-0.3)	(1.2)	(-2.5)	..
서비스업 생산	2.3	2.8	3.3	2.8	3.7	..	5.4	3.0	4.7	..
취업자수 증감 ¹⁾	533.0	336.9	375.9	287.1	289.1	317.5	354.3	298.3	387.0	267.1
(공공부문 ²⁾ 제외)	(541.2)	(358.1)	(333.2)	(234.7)	(221.3)	(251.4)	(282.5)	(214.9)	(323.1)	(216.0)
고용률	60.2	60.3	60.5	59.1	60.8	61.1	61.2	61.2	61.0	61.0
(전년동기대비, %p)	-	-	(0.1)	(0.1)	(0.1)	(0.2)	(0.3)	(0.1)	(0.3)	(0.1)
실업률	3.5	3.6	3.1	4.3	3.8	3.6	3.6	3.5	3.6	3.6
(전년동기대비, %p)	-	-	(-0.1)	(0.2)	(0.0)	(0.2)	(-0.3)	(-0.2)	(0.2)	(0.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연간 및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물 가]

-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 0.4%에서 1.2%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균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1%에서 1.3%로 상승하였다.

물가상승률

	16.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대비, %) 9월
소비자물가	0.8	0.8	0.7	0.4	1.2
(전월비)	(0.0)	(0.0)	(0.1)	(-0.1)	(0.6)
▪ 농축수산물	1.3	-0.7	0.2	1.0	10.2
(농산물)	(0.2)	(-4.6)	(-4.0)	(-1.1)	(15.3)
▪ 공업제품	-0.9	-0.4	-0.5	-0.5	0.0
(석유류)	(-11.6)	(-9.6)	(-8.9)	(-8.8)	(-7.0)
(석유류 제외)	(0.8)	(1.0)	(0.7)	(0.7)	(1.0)
▪ 서비스	2.2	2.2	1.9	1.9	1.9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1.6	1.7	1.6	1.1	1.3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상승률

	16.5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 9월
주택 매매가격	0.1	0.1	0.1	0.1	0.1
▪ 수도권 ¹⁾	0.1	0.2	0.3	0.3	0.2
(서울)	(0.2)	(0.3)	(0.4)	(0.4)	(0.3)
▪ 광역시 ²⁾	0.0	0.0	0.0	0.0	0.0
▪ 지방 ³⁾	0.0	-0.1	-0.1	-0.1	0.0
주택 전세가격	0.1	0.1	0.1	0.1	0.1
▪ 수도권 ¹⁾	0.2	0.2	0.2	0.2	0.2
(서울)	(0.2)	(0.2)	(0.2)	(0.1)	(0.2)
▪ 광역시 ²⁾	0.0	0.0	0.0	0.0	0.0
▪ 지방 ³⁾	0.0	0.0	0.0	0.0	0.0

주: 1) 서울, 인천, 경기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3)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자료: 국민은행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인하 효과 소멸, 국제유가 반등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

- 9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강화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이 상승하였다. 주가는 하락 후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반등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리, 주가, 환율¹⁾ 및 가계대출

	16.5월	6월	7월	8월	9월	10.12일
국고채(3년)금리(%)	1.50	1.25	1.22	1.31	1.25	1.35
국고채(10년)금리(%)	1.81	1.47	1.39	1.48	1.40	1.60
KOSPI	1,983	1,970	2,016	2,035	2,044	2,034
원/달러 환율	1,192	1,152	1,120	1,115	1,101	1,124
원/100엔 환율	1,071	1,122	1,081	1,080	1,093	1,084
은행 가계대출 ²⁾ 증감(조원)	6.7	6.5	6.3	8.6	6.1	..

주: 1) 기말기준
2) 모기지론 양도 포함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